

일부 경기지역 5세 아동의 구강건강실태와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한지형¹ · 임도선 · 안용순[†]

¹백석문화대학 치위생과,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e in Children at Age 5 and the Oral Health Behavior in Mothers for Some Parts of Gyeonggi Region

Ji-Hyoung Han¹, Do-Seon Lim and Yong-Soon Ahn[†]

¹Dept. of Dental Hygiene, Beakseok of culture university, Cheonan City, Chungnam 330-704, Korea
Dept. of Dental Hygiene, Eulji university, Seongnam City, Gyeonggi-Do 461-713,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tilize it as a basic data for local self-government in each region to plan and perform the oral health program targeting children and mothers as guardian. Data had been obtained by using children's oral examination and mothers' self-reported questionnaire method from June 1 to June 30 in 2007 targeting kindergartens where are located in the region of Hwaseong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ly 239 people. Its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healthy-tooth rate in the whole children accounted for 79.12%, thus girls were indicated to be a little higher with 80.36% than boys with 78.13%. Carious-tooth rate showed 8.74% for boys and 6.07% for girls. The dental-caries experience treatment rate showed 11.37% for boys and 12.59% for girls. 2. The index of children at age 5, df rate was 39.3% in the whole,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hat boys with 41.3% are higher than girls with 37.2%. Even dft index is showing the higher index in boys with 3.9 than girls with 3.2. 3. As a result of examining mothers' oral-health behavior, mothers with out employment thought the self oral-health state to be good(p=0.002). In appearance of scaling experience or of periodic dental checkup, a slight difference is being show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ut wasn't significant. 4. As a result of examining children's oral management, it was indicated that the higher economic level(p=0.011) and the more in mothers without employment lead to giving a light meal less(p=0.41). In appearance of children's periodic dental checkup, the higher academic background level(p=0.047) and the more employment(p=0.044) led to receiving dental examination.

Key words Oral health state, Oral health behavior, Children

서 론

유아기의 구강건강은 유치와 후속 계승영구치의 맹출을 유도한다는 점과, 유아기에 형성된 구강건강습관으로 인해 일생동안의 구강건강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치우식증은 유치 조기상실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후속영구치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교합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¹⁾. 따라서 유치의 치아우식증은 유아기의 구강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구강질환이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²⁾. 치아우식증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분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은 반면에 스

스로 구강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2010 구강보건정책목표'는 5세 어린이의 치아우식경험률을 2010년에 67.0%로 감소시키는 것이었는데 2000년에는 83.3%이었다가 2003년 77.3%에 이어 2006년에는 66.9%로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우식 경험치아수의 경우도 2010년까지의 목표가 4.4개이었는데 2000년 5.5개이었다가 2003년 4.1개, 그리고 2006년에는 2.8개를 기록하여 역시 201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앞당기었다³⁾. 하지만 2010년 목표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더욱더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의 치아우식증 예방 유발인자인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구강청결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유치의 중요성과 올바른 잇솔질의 습관화 및 간식섭취법 등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또한 이시기의 유아들은 보호자에 의한 관리 및 지식습득, 습관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건

[†]Corresponding author
Tel: 031-740-7228
Fax: 031-740-7352
E-mail: ahnys56@eulji.ac.kr

강을 보살피는 특수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가 그대로 영유아에게 반영되므로 일생동안의 구강건강이 어머니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⁶⁾. 그러므로 구강건강행위는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터전이며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은 자녀의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⁹⁾. BLinkhorn⁷⁾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구강건강행동을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로는 유치원 아동기라고 하였으며 구강건강행동은 어머니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성시 지역의 유치원 아동의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각 지역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5세 아동의 구강건강상태와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화성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8곳을 임의표본추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훈련된 전문가가 어린이의 구강을 직접 검사하였으며, 어머니의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조사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동의를 구하고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가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총 254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15부를 제외한 23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Table 1).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기위한 직접구강검사는 구강건강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탐침(Explorer, HAMMACH), 치

경(Dental mirror, HAHNENKRATT), 공기총 등을 이용하여 구강건강조사 기준과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거친 4명의 조사자가 피검자를 검사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건전치아, 우식치아, 우식경험치치치아, 우식경험상실치아, 우식비경험상실치아, 전색치, 미맹출치아의 백분율과 유치우식경험율, 우식경험유치율, 우식경험유치지수, 우식유치율, 치치유치율을 포함하였다.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조사는 자가구강건강상태, 스케일링과 정기검진의 유무, 자녀의 간식섭취 횟수, 정기검진 유무와 잇솔질 시기를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유치 치아우식증관련 주요지표 산출방법을 통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조사하였으며, 어머니의 자가구강건강상태는 리커트 5점 척도(5점 만점)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 비교는 교차분석(Chi-square)과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15.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5세 아동의 구강건강상태

1) 5세 아동의 구강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아동의 건전치율은 79.12%를 보이고 있으며, 여아가 80.36%로 남아 78.1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우식치율은 남아가 8.74%, 여아가 6.07%로 여아가 더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우식경험치치율은 남아가 11.37%, 여아가 12.59%였으며, 우식경험상실치율은 남아가 0.08%, 여아가 0.05%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number of surveyed children and mothers for analysis of this study

Unit: N(%)

Pre-school name Sex	Mae song	Song san	Seo shin	Mado	Jangahn	Suck chon	A	B	Total
Male	20 (8.4)	5 (2.1)	5 (2.1)	8 (3.3)	11 (4.6)	5 (2.1)	65 (27.2)	7 (2.9)	126 (52.7)
Female	10 (4.2)	4 (1.7)	6 (2.5)	5 (2.1)	9 (3.8)	6 (2.5)	37 (15.5)	36 (15.1)	113 (47.3)
Total	30 (12.6)	9 (3.8)	11 (4.6)	13 (5.4)	20 (8.4)	11 (4.6)	102 (42.7)	43 (18.0)	239 (100.0)

Table 2. The result of oral health state for the surveyed sample

Unit: %

Classification	Healthy- tooth rate	Caries- tooth rate	Dental caries experience treat- ment rate	Dental caries experience missing rate	Non-dental caries experience miss- ing rate	Sealant tooth rate	Non-eruption tooth rate
Male (N=126)	78.13	8.74	11.37	0.08	0.04	1.23	0.41
Female (N=113)	80.36	6.07	12.59	0.05	0	0.57	0.35
Total (N=239)	79.12	7.55	11.92	0.06	0.02	0.94	0.39

Table 3. Indexes related to dental caries according to sex
Unit: %, N

Classification	df rate	dft rate	dft index	dt rate	ft rate
Male (N=126)	41.3	20.2	3.9	40.0	60.0
Female (N=113)	37.2	18.8	3.2	30.0	70.0
Total (N=239)	39.3	19.6	3.6	35.0	65.0

2) 5세 아동의 유치 주요 지표 산출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5세 아동의 치아우식증 관련 유치의 주요 지표 산출결과를 보면 유치우식경험율(df rate)이 전체 39.3%를 보이고 있으며, 남아가 41.3%로 37.2%인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식경험유치지수(dft index)도 남아가 3.9개로 여아 3.2개보다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우식유치율(dt rate)은 남아가 40.0%, 여아가 30.0%, 치치유치율(ft rate)은 남아가 60.0%, 여아가 70.0%의 결과를 보였다.

2. 어머니의 구강보건행위 조사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5세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육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고졸 이하가 59.4%, 대졸 이상이 40.6%였으며, 경제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배기량을 알아본 결과 2000cc 미만이 45.2%, 2000cc 이상이 38.1%, 자동차가 없다가 16.7%로 나타났다. 아이를 곁에서 돌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40.2%, 미취업 어머니가 59.8%였다.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구강건강상태와 스케일링 및 정기검진 유무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구강건강상태와 스케

일링 및 정기검진에 대한 유무를 알아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자가구강건강상태는 최종학력에 따라 고졸 이하가 3.15, 대졸 이상이 3.02로 고졸 이하가 높았으며,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없음과 2000cc 미만이 3.15로 동일하였고 2000cc 이상은 3.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가 2.89, 미취업 어머니가 3.24로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보다 미취업 어머니가 자가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2). 스케일링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최종학력에 따라 고졸 이하가 83.8%로 대졸 이상 81.4%보다 스케일링한 경험이 약간 많았으며,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는 2000cc 이상, 없음, 2000cc 미만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가 미취업 어머니에 비해 스케일링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정기검진 유무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라 대졸 이상이 42.3% 정

Table 4. The result of mother's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s or lower	142(59.4)
University graduates or higher	97(40.6)
Engine displacement car	
No	40(16.7)
< 2000cc	108(45.2)
≥ 2000cc	91(38.1)
Employment	
Yes	96(40.2)
No	143(59.8)
Total	239(100.0)

Table 5. The result of oral health state, experienced scaling and regular checkup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elf-perceive oral health status		Scaling		P-value	Regular checkup (Mother)		P-value
	M±SD	P-value	Yes N(%)	No N(%)		Yes N(%)	No N(%)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s or lower (N=142)	3.15±.850	.263	119(83.8)	23(16.2)	.635	43(30.3)	99(69.7)	.057
University graduates or higher (N=97)	3.02±.878		79(81.4)	18(18.6)		41(42.3)	56(57.7)	
Engine displacement car								
No (N=40)	3.15±.802	.489	33(82.5)	7(17.5)	.407	13(32.5)	27(67.5)	.837
< 2000cc (N=108)	3.15±.884		86(79.6)	22(20.4)		37(34.3)	71(65.7)	
≥ 2000cc (N=91)	3.01±.863		79(86.8)	12(13.2)		34(37.4)	57(62.6)	
Employment								
Yes (N=96)	2.89±.857	.002**	85(88.5)	11(11.5)	.056	37(38.5)	59(61.5)	.368
No (N=143)	3.24±.839		113(79.0)	30(21.0)		47(32.9)	96(67.1)	
Total (N=239)			198(82.8)	41(17.2)		84(35.1)	155(64.6)	

**p<0.01

Table 6. The result of oral health conditions actual of mother for hers children

Classification	Frequency of between-meal intake food			P-value	Regular checkup (Children)		P-value
	More than 2 times per day N(%)	1 time per day N(%)	Less than 1 time per 2 or 3 days N(%)		Yes N(%)	No N(%)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s or lower (N=142)	30(21.1)	67(47.2)	45(31.7)	.512	83(58.5)	59(41.5)	.047*
University graduates or higher (N=97)	21(21.6)	39(40.2)	37(38.1)		68(70.1)	29(29.9)	
Engine displacement car							
No (N=40)	17(42.5)	13(32.5)	10(25.0)	.011*	22(55.0)	18(45.0)	.340
<2000cc (N=108)	20(18.5)	49(45.4)	39(36.1)		73(67.6)	35(32.4)	
≥ 2000cc (N=91)	14(15.4)	44(48.4)	33(36.3)		56(61.5)	35(38.5)	
Employment							
Yes (N=96)	22(22.9)	50(52.1)	24(25.0)	.041*	68(70.8)	28(29.2)	.044*
No (N=143)	29(20.3)	56(39.2)	58(40.6)		83(58.0)	60(42.0)	
Total (N=239)	51(21.3)	106(44.4)	82(34.3)				

*p < 0.05

기검진을 받는다고 답해 고졸 이하 3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는 2000cc 이상(37.4%), 2000cc 미만(34.3%), 없음(32.5%)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기검진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어머니가 정기검진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자녀의 구강건강관리

자녀의 구강관리를 알아보기 위해 간식횟수와 정기검진 유무를 알아본 결과 Table 6과 같다. 최종학력에 따라 자녀의 간식 횟수를 알아본 결과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모두 '1일 1회'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2-3일에 1회 이하', '1일 2회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 '1일 2회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음에 비해 2000cc 미만에서는 '1일 1회'가 45.4%로 높았고 2000cc 이상에서도 역시 '1일 1회'가 48.4%로 가장 높아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간식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1).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1일 1회' 52.1%, '2-3일 1회 이하' 25.0%, '1일 2회 이상' 22.9% 순이었으며, 미취업인 경우는 '2-3일에 1회 이하'가 40.6%, '1일 1회' 39.2%, '1일 2회 이상' 20.3% 순으로 나타나 미취업 어머니일수록 간식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41). 자녀의 정기검진 유무에 있어서는 최종학력에 따라 대졸 이상이 70.1%로 고졸 이하 58.5%보다 정기검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 = 0.047).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가 70.8% 정기검진을 한다고 답해 미취업 어머니 58.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44).

고찰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취학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힘만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없고 식습관이나 구강건강관리능력습득에 있어서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태도, 행동, 건강신념뿐 아니라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이 자녀의 건강행위 및 신념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8-10)}. 따라서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가 아동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관찰과 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런 목적을 올바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¹¹⁾. 그런데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등 가정을 가진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어머니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의 사회적인 여건도 고려하여 새로운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는 적절한 시기에 아동의 구강건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화성시 유치원 아동의 구강보건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를 알아보았다.

화성시의 5세 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치아우식증 관련 유치의 주요 지표 산출결과 유치우식경험율(df rate)이 전체 39.3%를 보이고 있어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³⁾에

서 보고된 5세 아동의 유치우식경험율 66.9%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식경험유치지수(dft index)는 3.6개로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³⁾의 2.8개보다 높게 나타나 유치우식을 경험한 아동은 많지 않으나 이미 우식을 경험한 아동은 일인당 보유하고 있는 우식유치수가 많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강상태가 불량한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병 예방과 조기치료에 대한 별도의 집중유아구강관리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인 자가구강건강상태와 스케일링 및 정기검진에 대한 유무를 알아본 결과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자가구강건강상태와 스케일링 유무에서 약간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정기검진 유무에서는 대졸 이상이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모두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보다 미취업 어머니가 자가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스케일링 유무와 정기검진에서는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경제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치과의료기관에 쉽게 접하고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스케일링과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느낀 결과이며, 이러한 행태로 인해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잦은 치과의료기관의 내원경험으로 인해 자가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 스케일링과 정기검진 경험이 많지 않아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상태는 막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검진 유무에 있어서는 고학력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정기검진을 많이 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 장¹⁰⁾의 연구에서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0회인 경우 고졸이 41.9%로 대졸 36.2%보다 높았고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경제적 상태가 여유 있는 경우에 방문횟수가 많았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¹²⁾의 연구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5.8%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30% 이상으로 앞의 연구결과보다 많았는데 이는 점점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정기검진에 대한 중요성과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구강관리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간식횟수를 알아본 결과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모두 1일 1회, 2-3일에 1회 이하, 1일 2회 이상 순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 1일 2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2000cc 미만과 2000cc 이상에서는 1일 1회가 가장 많아서 경제력이

높을수록 간식횟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011$). 그리고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1일 1회가 가장 많았으며,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2-3일에 1회 이하가 가장 많아서 미취업 어머니일수록 간식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나($p=0.41$)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송¹³⁾의 연구 중 비취업모의 자녀가 치아 보호 및 청정간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정기검진 유무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70.1%)이 고졸 이하(58.5%)보다 정기검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47$)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고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출근을 하는 어머니가 70.8% 자녀의 정기검진을 한다고 답해 미취업 어머니 58.0%에 비해 높았다($p=0.044$).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는 앞의 결과에서 스케일링 횟수, 정기검진 횟수에서 모두 미취업 어머니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보인 것과 종합해보면 어머니 자신의 구강건강행위가 적극적인 집단에서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가 아이의 구강건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취업여부에 따라 대상을 구분한 후 미취업 어머니에게는 스케일링과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간식 횟수를 줄이도록 교육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민간기관인 치과병의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경기지역인 화성시의 유치원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한계성을 보이며, 응답의 집중도를 보이기 위해 문항수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아동 및 보호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계획 및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화성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동의 구강검사와 어머니의 자가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얻었으며, 총 2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아동의 건전치율이 79.12%를 보이고 있으며, 여아가 80.36%로 남아 78.1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우식치율은 남아 8.74%, 여아 6.07%, 우식경험치율은 남아 11.37%, 여아 12.59%를 보였다
2. 5세 아동의 유치우식경험율(df rate)이 전체 39.3%를 보이고 있으며, 남아가 41.3%로 37.2%인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식경험유치지수(dft index)도 남아가 3.9개로 여아 3.2개보다 높은 지수를 나타내 여아가 남아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를 알아본 결과 자가구강건강상태는 미취업의 경우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좋다고 답하였다($p = 0.002$). 스케일링 경험 유무나 정기검진 유무에 있어서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약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4. 자녀의 구강관리를 알아본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p = 0.011$),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일수록 간식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41$), 자녀의 정기검진 유무에 있어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p = 0.047$), 취업을 하고 있을수록($p = 0.044$)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Kim SK: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ur on dental carie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4(2): 165-177, 2004.
2. Han JH, Lee YS, Ahn YS, Kim MJ, Huh SY, Shin MM: A epidemiological study on the oral health of 5years children in Seongnam city. JDHS 5(2): 89-95, 2005.
3. The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06' Oral health research, 2007.
4. Kim YH: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ur in oral health statu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5(1): 15-27, 2005.
5. Park HS, Kim JS: A survey of parent's oral health perception for the oral health promotion of the preschool children. JDHS 7(3):135-139, 2007.
6. Choi SS: 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ge and behavior of mother and a oral health condition of children. JDHS 5(4): 245-250, 2005.
7. Blinkhorn AS: Dental preventive advice for pregnant and nursing mothers sociological implications. Int Dent J 31(1): 14-22, 1981.
8. Ahn YS, Kim ES, Lim DS, Jung SH, Kim MJ: A study on preschool teac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in Sung-nam city. JDHS 1(1): 13-21, 2001
9. Wierzbicka M, Petersen PF, Szatko F, Dybizbanska E, Kalp I: Changing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behavior of schoolchildren in Poland. Community Dent Health 19(4): 243-250, 2002.
10. Chang BJ: Study in dent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mother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6(2): 153-164, 2006.
11. Kang HS, Kim HK, Chung KH: The effects of oral care on children by parents. J of Korea Soc of School Health 13(2): 319-329, 2000.
12. Lee KH, Shin MM, Heo SY, Ahn YS: A study on the outlook of mothers with five-year-old children in the city of Seongnam on dental health and their relevant behaviour.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5(1): 63-75, 2005.
13. Song HJ: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oral health of the infants in kindergarten according to mothers'care.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8(1): 59-71, 2008.

(Received February 10, 2009; Accepted March 10, 2009)

